

인쇄하기

인쇄하기

창닫기



HOME > 뉴스 > 사회

농어촌公 청주시, 종암2리 복합문화시설 준공식 개최

이윤빈 기자 승인 2021.11.12 15:11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시사는 청주시와 위(수)탁협약체결을 시행한 종암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인 '복합문화시설' 준공식을 12일 개최했다. (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청주시사)

한국농어촌공사 청주시사(하성래 이사장)는 청주시와 위(수)탁협약체결을 시행한 종암2리 마을만들기사업인 복합문화시설 준공식을 12일(금) 미원면 종암2마을에서 이상원 상당구청장, 박구식 미원면장, 박문희 도의원, 마을주민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최하였다.

종암2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총 10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원면 종암리 일원에 복합문화시설 신축, 어울림동산 조성, 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마을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, 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.

이날 행사에서 이상원 상당구청장은 "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애써주신 마을 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과 청주시(농업정책과),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감사를 표하였고, 하성래 청주지사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 조성에 힘쓰겠다"고 밝혔다.

종암2마을은 비로소 '복지문화시설'이라는 공동체 공간이 마련되어 풍물패, 작은 영화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용소골분티 마을이 화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윤빈 기자 news@jbfocus.co.kr

<저작권자 © 중부포커스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